

# ‘연동형 캡 한시적용·이중등록제’ 가닥

‘4+1’ 협의체 실무협상서 합의초안 마련  
세부내용 조율·각 당 추인 등 힘로 예상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비례대표 배분 연동형 캡(cap) 내년 총선 한시적 적용과 이중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4+1’ 협의체 협상에 정통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실무 협상이 끝났다”며 “이달 내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둘러싼 견해차를 좁혀 합의안 초안을 마련한 뒤 참여 정당·정치그룹에 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을 나누며, 비례대표 50석 중 30석만 캡을 씌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로 배분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동형 캡은 내년 총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폐지하

기로 했다. 대신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동형 캡과 석패율제를 두고 가장 크게 부딪혔던 민주당과 정의당의 입장을 일정 부분씩 반영해 조율한 안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하는 실무 협상 당사자들은 이날까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런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실무선에서 정리한 큰 방향만 담은 ‘초안’이라 최종 합의까지는 힘로가 예상된다.

이중등록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담기지 않아 향후 추가 조율이 필요한 데다, 당별 추인도 거쳐야 한다. 각 당내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합의’인 셈이다.

당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회동에서 합의 초안

과는 다른 의견을 내비쳤다.

손 대표는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 것은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런데 캡을 씌우는 건 안 된다. 석패율제는 지역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의 중요한 원천이니 6개 권역에서 각 1명씩 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각 정당이 자체 수정안을 만들어 응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공식 제안이 오면 토론회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각 당이 입장을 정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손 대표는 석패율제가 필요하다”고 했고, 심 대표와 저는 연동형 캡을 벗기고 석패율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중등록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검토될 수 있는 안이다. 국민 지지를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폭력사태 항의

정의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들의 지난 16일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의 한국당 농성장을 찾아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총선 브리핑

### 이형석 최고위원, 북구를 예비후보 첫날 소통행보

내년 총선 광주 북구를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 이형석 최고위원이 17일 예비등록 후 첫 일정으로 관내 경로당 방문과 함께 지역언론사 등을 찾는 소통행보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최고위원은 “내 어르신들께 먼저 인사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 주요 경로당을 찾았으며 지역의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공약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내년 총선에서는 수구보수 세력의 저항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광주가 옳다는 해답과 국민이 이긴다는 진리를 광주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첫날 행보를 펼쳤다.

이 최고위원은 39세에 전국최연소 광역의회의장을 역임한 뒤,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과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거쳤다.

민주당 광주시장 위원장으로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 압승을 이끌어 낸 전략기획통이며,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을 연임하는 자격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이기자

###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광산을 예비후보 등록

민형배 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광산구를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민 예비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에 뛰어든 때의 초심을 생각하며 앞으로 120일 동안 3실(진실·성실·절실)의 자세로 민생현장을 누비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첫 행보로 장애인 송년 행사장을 찾아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 후보는 지난 9일 출마선언을 통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 당당하고



튼튼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가치와 실질 추구의 정치, 조정과 협력의 정치, 경청과 반응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 후보는 1961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비서관(2006~2007년) ▲민선5·6기 광산구청장(2010~2018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자치발전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2018~2019년) ▲더불어민주당 광산을 지역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대이기자

### 윤영덕 전 행정관, 동남갑 예비후보 등록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광주 동남갑 지역 출마를 선언한 윤영덕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17일 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윤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후보등록을 하고 “광주의 시대정신을 잇고, 광주 정치의 세대 교체를 잇는 젊고 참신한 정치를 펼치기 위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출마선언에서 “세상을 잇는 젊은 정치로 동남갑에 정치혁신의 동남풍 일으키겠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정치 비전으로 중앙 정



치의 혁신, 광주 정치의 세대 교체, 광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내걸은 바 있다.

윤 예비후보는 참여 자치21 지방자치위원장, 광주YMCA 이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운영위원 등의 시민 활동을 하고, 2017년 대선 문재인 후보 경선 및 본선 캠프에서 지역공약 개발을 담당, 정부 출범 이후 올해 5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김대이기자

### 이정희 전 한전 감사, 동남갑 예비후보 등록

이정희 전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가 17일 오전 남구선거관위를 찾아 광주 동남갑에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예비후보는 등록 후 “문재인 정부가 많이 어렵다. 대통령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

광주와 남구의 경제도 어렵다. 에너지 뉴딜을 통해 반드시 광주와 남구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겠다”며 “누가 진정으로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 현명

한 광주 남구시민들께서 알고 계신다. 지금도 저 이정희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힘을 주실 것이다.



자신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광주제일고와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광주지방변호사회 제48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또한 2018년부터 한전 상임감사로 재직하면서 118개 공공기관의 감사·비상임 감사가 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상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회장도 맡았다.

/김대이기자

### 이병훈 전 부시장, 동남을 예비후보 등록

이병훈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자 17일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 예비후보는 등록을 마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광주공원 현충탑을 찾아 참배하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길에 앞장서는 든든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두 번의 총선에 낙선한 후 일감사가 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민의 삶을 지켜보며 서민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암울한 우리 정치의 현실을 마주



할 때마다 가슴 아팠다”며 “사랑하는 후손에게 정의로운 나라, 꿈과 희망이 가득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의 촛불을 들

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 총괄선대본부장,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광주형일자리’의 주역,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기틀을 완성한 문화경제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대이기자

### 대안신당 김명진, 서구갑 예비후보 등록

김명진 (가정)대안신당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서구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 송년회 참석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배식봉사를 첫 일정으로 민생밀착 행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상인들에게 출마인사와 함께 애로사항 청취 활동을 진행한 후 저녁에는 동천동 상가일대를 방문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120일 동안 주민



들과 하루 1천명 약속하기를 목표로 뛰겠다”며 “눈높이 행보, 현장행보, 경청행보를 통해 서구민들께 그리고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여 년간 청와대행정관, 대통령직 인수위, 여야정당, 국회, 공기업 등 국정전반을 경험하고 당대표,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특보를 6년 경험한 의정사상 특별한 경력으로 국회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대이기자

### 조오섭 전 군발위 대변인, 북구갑 출마 선언

조오섭 전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이 17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북구갑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킴 광주와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자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인 광주를 되찾겠다”고 출마표를 던졌다. 이어 “감찰개혁을 반대하고, 남북평화와 공존번영을 바라지 않는 세력이자 우리 국민들을 배반한 자들이 누구인지 직시해야 한다”며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채 정쟁에만 몰두하는 제1야당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일부 무책임한 국회의원들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전 대변인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더 강한 대한민국 ▲지역이 강하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 ▲주민이 주인되는 강한 지방자치 ▲따뜻한 복지, 안정적 지방재정 ▲남북평화와 공존번영을 위한 ‘통일’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대이기자

### 정준호, 북구갑 예비후보 등록 마쳐

정준호 예비후보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17일 오전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정 예비후보는 “정치교체, 세대교체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거세다”며 “지난 4년 간 지역에서 활동하며 철저하게 검증한 마친 만큼 급변하는 미래를 든든히 떠받치는 정치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광주의 해묵은 갈등과 현안 풀 수 있는 젊은 일꾼에게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정 예비후보자는 이날 첫 행보로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시의회에서 토론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해외선진법 비교분석’을 주제로 토론한 정 예비후보는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로 부모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안심하고 아이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이기자

### 이용빈 전 광산갑 지역위원장 예비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전 광산구갑 지역위원장은 17일 21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산구갑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이 예비후보는 지지자와 함께 광주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자 등록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쳤다.

이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이 광주에서 중앙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모습은 주권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



리 시민(광산구민)에게 보시기에 참 바깥은 모습이었던 좋겠다”며 “저 이용빈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오직 시민의 뜻을 받들고, 민생에 답하는 정치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더 나은 광산, 더 밝은 광주,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자격과 준비가 되어있다”며 “당신 곁(광산구민)에 바깥은 변화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김대이기자

###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총선 출마 선언

순천대 총장을 지낸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은 17일 순천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내년 4월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 순천 지역구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장 전 교육감은 “정치가 어렵고, 혼란스러워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 전문가로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를 정확히 개선해 혼란스런 정치를 질서 있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천 발전을 위해 장 전 교육감은 “교육, 문화·예술, 생태, 경제, 복지도시로 만들어 명실상부한 전남 제1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도시로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인문학교육 활성화, 창의력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 R&D센터 설립, 산학협력 인적자원 개발 등에 나설 것”이라며 “생명이 행복한 환경도시, 순천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도시와 스마트 워터 도시 개발, 전기·수소 시내버스 운영, 동물 공존 도시 건립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 우기종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목포 출마 선언

우기종 전 전남도 정부부지사 17일 목포 동부시장 입구에서 21대 목포시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에 들어갔다.

우 예비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변화와 도전, 우리가 맞이할 기회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호남정치와 목포경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의미에 대해 “인물도 세력도 호남이 중심이 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결정하는 선거이며, 총선 결과에 따라 목포와 전남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짓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며 “10



년 넘게 정체된 목포 시민들의 희망을 되살려야 하고, 목포시민의 선택이 호남의 자립이라는 경제적 운명을 결정한다”고 역설했다.

우 예비후보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톤대 경영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24회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총무과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13대 통계청장을 역임했다.

/임재만기자

### 정의당 이정자, 광양곡성구례 출마 선언

정의당 이정자 광양곡성구례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예비후보는 17일 오전 광양시 중앙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행보로 광양 평화의 소녀상을 찾아 헌화하고 목도리를 씌웠다. 이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광양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치가 기득권 세력에 의해 휘둘리는 반시대적 폐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특권과 불



평등을 해소하는 정치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진보정당 본연의 책임을 다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낼 것”이라며 “보육교사 14년 경력의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느꼈던 감정과 경험을 토대로,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는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만기자